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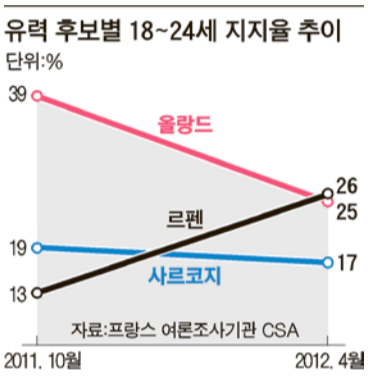
프랑스 아픈 청년들 극우 르펜에 열광

(18~24세 그룹)

세계의 선거 현장을 가다

프랑스 대선

올해는 전 세계적인 '선거의 해'다. 세계 193개국 가운데 59개국에서 제·간접 선거가 치러진다. 세계 인구의 53%가 투표장으로 향한다. 각 나라의 선거에서 공방적으로 떠오른 변수는 '분노세대'다. 경제위기로 인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금융권과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본지 취재팀은 프랑스와 미국·독일 등을 찾아 분노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당사 앞마당엔 잔 다르크 동상... 출입 삼엄하게 통제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은 아버지 때보다 열린 우파와 지향 경제 앞세워 올해 대선 선전

지난 19일 파리 외곽 난테르(Nanterre)에 있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 당사, 건물 외벽에선 이곳이 국민전선 당사라는 걸 알리는 문구나 벽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당사의

건물 외벽이 온통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얼굴로 도배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국민전선 건물 안마당에는 극우 정당답게 프랑스 국가와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 잔 다르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들어가고 나올 때 보안요원의 삼엄한 통제만 받아야 했다.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인상이었다. 국민전선은 1972년 장마리 르펜(84)이 창당했다. 그는 외국인 이민자 수를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유럽연합(EU)과 세계화에도

반대해 왔다. 사회제를 찬성하고 동성애와 나라는 반대한다. 독일 나치 정부의 유대인 대학살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여파로 76년엔 유대계 테러리스트가 그의 집에 폭탄테러를 가했다. 74년부터 2002년까지 다섯 차례 대선에 출마했다. 처음엔 지지율이 0.7%에 그쳤으나 2002년엔 16.9%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그의 딸 마린 르펜이 출마했다. 그는 아버지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며 인종 문제나

불거진 중산층과 서민의 불만이 좌파 정당 지지라는 계급적 투표보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극우 정당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전선 창립자 장마리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은 이번 대선에서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도 보호무역으로 프랑스 경제를 살리자고 주장해 상당수 중도층 표를 끌어안았다는 분석이다. 19일 파리의 오페라극장에서 만난 파비어(26)는 "우리가 내는 세습

실업률 10%, 13년 만에 최고 젊은 표심 민족주의에 쏠려 르펜 18% 득표 · 창당 후 최대

을 외국인한테까지 쫓 필요는 없지 않나"며 "'68세대(1968년 5월 드골 정부의 실정과 사회제 모순으로 시작된 저항운동 및 총파업투쟁을 주도한 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프랑스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극우 정당 지지층 가운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젊은 층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CSA가 이날 초 공개한 결

과를 보면 18~24세 그룹의 국민전선 지지율이 26%로 다른 정당들을 제치고 1위였다. 해외 언론들 역시 결선에 오른 사회당 올랑드 후보나 사르코지 현 대통령보다 르펜에게 더 관심이 많다. 뉴욕타임스는 "극우 세력에 표가 몰린 것은 프랑스 경제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anger)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랑스 대선의 극우 정당 강세현상을 '경제가 관두박질치는 데도 과도한 복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에 달해 지난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90%에 육박한다. 반면에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그러다 조세 부담(불문학) 교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해방을 찾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실대 조흥식(정치외교학) 교수는 "사회주의 국가 프랑스에서 젊은 층이 극우파에 몰린 것은 이례적인 모습"이라며 "지속된 사회불안과 외국인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블루즈·파리=김성진 기자

민족주의보다 프랑스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해 FN의 지지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전선 측은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국민전선의 청년지도 담당인 줄리안 로제디(24)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30년 동안 프랑스의 경제력과 삶의 질, 사회보장제도 등 세 가지 요소가 쇠퇴했다"며 "세계화와 EU, 다문화에 염증을 느끼는 젊은 유권자들이 국민전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여성들의 당원 비율이 높은 것은 프랑스의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민상 기자



프랑스 극우파 정당 국민전선 대통령 후보인 마린 르펜이 22일 파리에서 주먹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17.9%를 얻어 3위를 차지했다. [파리 로이터=연합뉴스]

결선에 간 사르코지·올랑드 두 사람 운명 르펜에 달렸다

프랑스 대선 내달 6일 결판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니콜라 사르코지(57)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58) 후보의 맞대결로, 좌우 진영의 싸움이다. 22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10명의 후보 가운데 올랑드가 28.63%로 1위를 차지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27.18%, 득표로 2위를 이었다.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위 후보만 놓고 결선을 치르는 선거 방식이다.

사르코지, 르펜표 흡수 총력 올랑드, 좌파표 결집에 여유

식에 따라 2주 뒤인 다음 달 6일 다시 한번의 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의 실질적 승리자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44)이었다. FN 설립자의 딸인 그녀는 17.9%의 표를 얻었다. 1972년 창당 이래 가장 큰 유권자의 지지가 나타난 것이었다. FN은 이민자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고 주장해 왔다. 프랑스 언론들은 실업자와 이민자 범죄 증가, 중도우파인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민심 이반 등을 르펜 후보 약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르펜 지지표를 결선에서 흡수해야 한다. 그는 개표 뒤의 연설에서 "국민이 이민자 문제나 가족의 안전 문제를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르펜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을 향한 발언이었다. 르펜은 결선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다음 달 초 밝힐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하느냐에 그의 지지 표명 여부가 달려 있다. 이에 비해 좌파 진영은 올랑드 후보로의 표 결집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11.1%를 득표한 좌파연합의 장뤼크 멜랑송(66)을 포함해 1차에서 탈락한 5명의 좌파 계열 후보가 속속 올랑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사르코지에게 다시 5년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연대감을 이루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8~12%포인트 차이로 올랑드 후보가 결선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분열로 우파 진영의 표가 결집되지 않은 것이 이런 표 차를 만들었다. 사르코지 캠프의 대변인인 나탈리 코시우스코-모리제는 "사회당 집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지지자들을 한데 모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리=이성민 특파원



후보	소속 정당	주요 공약	득표율(%)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최저임금 인상, 정부지출 증가, 부자-대기업 증세	28.63
니콜라 사르코지	대중운동연합	감세 통한 경기 부양, 이민자 가족 입국 강화	27.18
마린 르펜	국민전선	유료존 탈퇴, 법적 이민자 한도 1/20로 축소	17.9
장뤼크 멜랑송	좌파전선	월 최저임금 인상, 연 36만 유로 초과소득 몰수	11.1

오바마·롬니 승패 가를 그들

①자녀 있는 기혼여성 ②도시 근교 무당파 ③가톨릭 ④기독교 ⑤히스패닉

이쪽저쪽 오가는 스윙그룹 WP '미국 대선 결정자' 소개

11월 대선을 앞두고 벼락 오바마 대통령 진영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진영이 환심을 사기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유권자 그룹이 있다. 선거 때마다 승패를 좌우해 온 이들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결정자(Deciders)'라고 규정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3일(현지 시간) 민주·공화당 두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 놓쳐선 안 될 이들을 5대 유권자 그룹으로 분류해 소개했다. 첫째가 아이기 있는 기혼여성 그룹이다. 오바마는 여성 표에서 강세나 성당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이쪽저쪽을 오가며 승패를 결정짓는, 이른바 '스윙그룹'이다. 2008년 대선에서 '교회(성당)를 가지 않는 신자들'은 58% 대 40%로 오바마를 지지했고, 2년 뒤 중간선거에선 공화당을 그만둔 뒤 지지해

하는 이들을 놓고 공화당 여론조사팀은 "롬니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표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WP는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인 복음주의자도 5대 유권자 그룹 속에 포함시켰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을 보여 온 이들을 대선 판도를 좌우할 그룹으로 꼽은 건 모로코도인 롬니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이다. 2004년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물표를 안긴 이들이 유권자 5대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대선 판도를 좌우할 마지막 유권자 그룹은 라틴계 미국인, 히스패닉 유권자다. 전체 유권자의 8~9%를 차지하는 이들은 매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롬니는 4년 전의 매케인보다 히스패닉 유권자의 지지를 못 끌어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의 관심사인 이민 정책에서 강력한 발언을 해 온 게 주된 이유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pmaster@joongang.co.kr

3·11 쓰나미에 끌려 알래스카까지 간 축구공

미국인 부부가 지난달 발견 공에 쓰인 글로 주인 찾아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에 휩쓸린 축구공이 1년 만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견돼 주인이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날 미국 알래스카주 미들턴 섬 해안에서 발견된 축구공의 주인이 지진 피해 지역인 이와테(岩手)현 리쿠젠타카타(陸前高田)시이고 2학년생 무라카미 미사키(村上 美咲·16)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축구공을 발견한 사람은 알래스카주 카실로포에 거주하는 미연방항공국(FAA) 직원 데이비드 박스

터(51). 그는 지난달 15일 FAA의 통신설비 점검을 위해 미들턴 섬을 방문했고, 동료와 해안가를 산책하다 축구공을 발견했다. 공엔 학생 세 명의 이름과 함께 '오사베 초등학교 3학년' '무라카미 미해' 등의 글이 일본어로 쓰여져 있었다. 지진 피해 지역으로부터 휩쓸려 온 물건임을 확인한 박스터는 일본인 부인과 함께 축구공에 쓰인 글을 기초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미국 해양대기국(NOAA)의 도움을 받아가며 결국 축구공 주인을 찾게 된 것이다. 무라카미에 따르면 축구공은 7년 전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전학할 당시 반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받



미 해양대기국(NOAA)이 공개한 축구공. 미 해안대기국(NOAA)이 공개한 축구공. 이 선물이었다. 항상 침대 옆에 소중히 보관했지만 지난해 대지진이 쓰나미에 휩쓸려져 잃어버렸다고 한다. 박스터 부부는 5월 말 일본을 방문해 축구공을 직접 무라카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대학원 전용 건물 '엑스플렉스'를

'승실대움'을 펼쳐나갈 최고의 인재를 찾습니다

승실대학교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전형방법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신·편입생	서류심사 및 구술평가
원서접수	서류심사 및 구술평가
내국인 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2012년 4월 23일(월) 10:00 ~ 26일(목) 16:00까지 (대학원 홈페이지 하단 링크서비스 - "온라인입학지원" 클릭)	2012년 5월 12일(토)
외국인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2012년 4월 23일(월)~26일(목) 10:00~16:00 (대학원 입학팀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 교학팀 : 02-820-0258~9, FAX 02-824-4381 - 홈페이지 : grad.ssu.ac.kr

승실대학교
Soongsil University www.ssu.ac.kr

정부 중소기업창업상담기관 및 금융지원기관이 "기업승계기업"을 위한

2세대 CEO 기업자금조달 비법과 절세전략 고정

500조원, 4000여종 정책금융 운용과 조달에 대한 고민을 확 풀어주는 국내 유일 2대CEO 과정!

약 7~9%대의 은행권에 편중된 자금조달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 무상자금 및 1~4%대 정책금융 500조원 4000여종의 기업지원자금을 4개 콘텐츠와 28개 색션구상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활용하시고, 또한 전·현직 금융기관·보증기관의 전문 교수진과 인적 Net-work를 구축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 4개 콘텐츠와 색션

- 1~4%대 정책 융자금 조달비법
- 기업승계용 정책자금 조달상식 15선
- 1~4%대 기업승계용 융자금 5억 조달비법
- 기업 성장단계별 금융조달과의 관계성
- 2세 경영자가 알아야 할 금융평가법 등
- 무담보·무이자·무보증·무상한 정책자금 활용비법
- 기업승계 맞춤형 무상자금 발굴과 활용비법
- 2세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금융 비밀 10종
- 자금조달 SYSTEM구축개요와 중요성
- 매월 무상자금 2천만원 수혜전략 등
- 정부인증 마크를 통한 절세와 금리인하 비법
- 자금조달형 혁신기업 승계받기
- 정관, 법인등기부, 사업자증, 공정증과 자금연관성
- 인종마르를 통한 체세테크 수혜전략
- 혁신기업 승계로 보증료, 금리, 세제혜택 감면비법 등
- 기업자금조달 SYSTEM구축비법
- 기업승계 시 자금조달SYSTEM 진단과 점검사항
- 재무자료의 사전관리 SYSTEM구축
- 적정본근주 SYSTEM 설계
- 필요자금 및 규모산출 SYSTEM구축
- 최적 자금조달 원천 결정 SYSTEM구축 등

■ 참가대상

- 2세 경영자, 예비창업자, 금융지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퇴직연금컨설턴트 등

■ 교육기간·비용·장소

- 2012. 05. 08 ~ 2012. 05. 11 (09:30 ~ 17:20)
- 1,890,000원/인/교재/중식 포함
- 한국경영연구원 - 경기 수원 지점 483-16

■ 접수·상세내용·문의

- www.kmics.com → 교육·연수 → 기업승계금융
- 신청서작성 → 팩스, 이메일승부 → 접수확인
- www.kali.or.kr → 공지사항
- 전화 : 031233-9234~5, 팩스 : 031233-9236
- 이메일 : km9000@empas.com, 총영미과장

44차 기업승계 및 창업용 정책자금 150조원 150조원 조달비법 무료강좌

- 시간 : 2012. 05. 03 (목) 18:30~20:30
- 내용 : 1부-창업 정책자금(무상+융자) 5억조달법
2부-기업승계기업 무상자금 활용전략
3부-기업승계기업 1~4% 정책융자금활용법
- 장소 : 한국경영연구원, 20명 한정 사전신청, 자료제공

(사)기술혁신협회 · 한국경영연구원

문의 1544-9407

해외건설 ·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실시

"해외건설협회가 연간 수주 1,000억불 시대를 대비하고 해외건설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이기 위해 교육기관과 함께 해외건설 · 플랜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운영기관 : 해외건설협회

■ 교육기관

교육기관	과 명	교육기간	교육인원(명)
중앙대	해외건설 PM 전문가 양성과정	2012.5.19~12.15 (토요일 09:30~17:30)	120
충북대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과정 - 계약관리 및 법률임 -	2012.6.8~11.30 (금요일 14:00~21:00)	80
한양대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2012.5.3~12.27 (화·목요일 18:30~21:30)	120

* 모집대상 등 상세내용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건설협회,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